

哲學片感(七)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朴相鉉

何等의 吟味와 努力이 업시 哲學을 難解의 學問이라고 非難한다면 비단 哲學 뿐만 아니라 世上의 一般 學問은 모다 難解의 學問이라 非難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確實히 難者의 態度는 學問에 對한 消極的 卑怯的 態度이다. 그러한 消極的 態度를 □□하고 正當한 學究的 態度로써 學問研究의 積極的 態度를 取하라 그러면 哲學이란 學問을 얼마큼이라도 理解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비로서 自己의 참다운 人生觀을 세울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朝鮮人和 哲學과의 關係이다. 朝鮮사람은 哲學을 매우 等閑視하는 것 같다. 等閑視하게 된 그 理由는 만췌지만 나의 愚見에는 朝鮮사람들은 哲學은 僧侶□이나 修道院 內에서만 매울 學問갓티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哲學은 朝鮮에서는 度外視되여 왔고 輕視되여 온 듯 하다. 勿論 朝鮮에 哲學思想이 全無하다는 말은 아니다. 支那 哲學思想을 輸入하여 一時는 支那 學問 崇拜의 時代도 잇섯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大概는 模□에 不過하얏고 내세울만한 哲學의 體系가 업섯든 것도 事實이다.

何如는 朝鮮人은 哲學을 重要視하지 안는 것만은 事實이다. 여기에서 難者는 이러케 말하리라. 貧窮한 朝鮮사람이 어느 時節에 哲學가튼 有閑的 學問을 배울 수가 잇는가? 朝鮮사람은 언제나 經濟的 生活를 打開 할만한 學問을 배워야 된다고 이 가튼 非難은 어느 意味로 본다면 可當한 非難이다. 그러나 이 非難은 너무나 幼稚□함에 不過하다. 筆者亦 朝鮮사람의 經濟 生活 現象을 몰으난 사람은 아니다. 經濟的으로 朝鮮을 □하여야 될 形便임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아모리 貧窮한 朝鮮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도 哲學이 잇서야 되겟슴을 絶叫한다. 그 理由는 簡單하다.

우리가 哲學을 研究함은 다만 理論的 學問으로만 研究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리혀 理論的에서 實際化식히자는데 哲學研究의 意義가 存在한 것이다. 그러면 朝鮮사람도 朝鮮을 如何히 哲學化하는 그 方法論을 매우려는데 朝鮮人

의 哲學研究의 必要性이 잇지 아늘가?

朝鮮의 社會를 哲學化하고 朝鮮의 將來를 哲學化하려는데 哲學研究의 意義가 잇다는 말이다. 朝鮮을 經濟的으로 如何히 □하려는 그 方法論을 말하는 것도 哲學이 아늘가? 如何튼 以上の 簡單한 理由로써 朝鮮人의 哲學研究의 必要性을 力說한다.

朝鮮사람에겐 工學도 農學도 商學도 醫學도 모다 切實히 必要한 同時에 哲學도 必要함을 거듭 主張하는 바이다.

넷재로 哲學은 誤解하여 悲觀者, 厭世者의 □難所라고 생각하며 □之於 哲學을 工巧하면 厭世者가 되는 즐로 誤解하는 사람도 잇다. 悲觀者, 厭世者가 어째서 哲學을 조하한단 말인가? 참으로 哲學을 輕蔑하는 말이다. 厭世者란 世上에서 가장 弱者요, 卑怯者인 것이다. 요지음 悲觀을 하여 自殺을 하느니 情死를 하느니 하는 非人道的 行動을 하는 사람을 본다. 또한 어찌한 사람은 悲觀自殺하는 사람을 보고 無限의 同情心을 가진다. 同情心을 가지는 사람들의 心情을 考察하건대 그들은 大概是 世上은 苦海이니까 오즉하여 悲觀까지 했슬 것이며 오즉하여 自殺까지 했슬 것이냐고 하는 이러한 無意味한 同情心을 가진다.

나는 悲觀自殺도 絶對 反對하거니와 그러한 自殺에 對한 同情도 反對한다.

사람이란 누구나 自己의 理想이 잇서야 되고 目的 意識이 잇서야 됴은 여기에서 區區히 다시 말할 必要도 업다. 生의 要求하는 生的 慾望과 理想을 無視하고 世上을 悲觀한다는 것은 生의 意義 上으로 보든지 社會的 意義 上으로 보든지 等의 價値何가 업는所爲인 것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나는 無價値한 盲目的 行爲를 敢行하는 悲觀者나 厭世者를 弱者요, 卑怯者라고 부르는 것이다.